

대졸 청년 취업 이동에서의 인적자본 특성의 변화*

Analysis of Changes in Human Capital Characteristics in Occupational Mobility of College Graduates

김현우 Kim, Hyunwoo**, 양준석 Yang, Junseok***

Abstract

The concentration of the youth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has continued in the past for purposes such as education and employment. However, youth population movement is more important due to the issues of low birth rate, population decline, and local extinction crisi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factors affecting occupational mobility of human capital from 2009 to 2019.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experience an official English test had and the higher the school grades,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moving to other regions or the metropolitan area. And movement factors vary depending on destination and era. This suggests that the high level of competi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has both positive and occupational effects on job mobility. For example, gender no longer served as a significant variable, and the age at which people moved to the metropolitan area increased. There is a need to consider occupational mobility factors among young people in employment policies and regional policies.

Keywords: Migration, Youth Population, Occupational Mobility,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ivariate Probit Model

I. 서론

우리나라 지역 간 인구이동에 있어서 20~30대 청년층은 이동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이다. 2022년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615만 2천 명으로 인구 이동률은 12.0%를 기록하였는데 그중 20대(23.1%)와 30대(18.9%)의 이동률은 국내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다(통계청 2023). 20~30대 청년층의 인구 이동률이 높은 배경으로는 개인의 생애 주기에서 대학 입학과 졸업, 취업 및 이

직, 결혼 등의 이벤트가 발생하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 간 이동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수정, 이차희, 심혜민, 이종표(2022)에 따르면 청년층이 지역 간 이동한 이유는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방 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만 19~39세)이 현 거주지로 이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42.0%)', '교육/보육(14.7%)', '부모님/가족(10.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하수정, 이차희, 심혜민, 이종표 2022). 일자리가 주된 이주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신고전적 인구

* 이 논문은 산업연구원에서 2022년 중점연구과제로 수행한 "지역정책 20년의 공과와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방향 모색"(허문구 외 2023)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제1저자인 김현우는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함.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제1저자) | Senior Research Specialist, Center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 Primary Author | hwkim@kiet.re.kr

***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교신저자) | Associate Research Fellow, Division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 Corresponding Author | jsyang@dsi.re.kr

이동 모형의 대표적 학자인 토다로(Todaro)의 기대소득 가설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사람은 도시의 비공식부문에 취업하여 농촌 생활보다 더 낮은 소득을 받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 도시의 공식부문에 취업 기회를 가지게 된다(Todaro 1971). 즉, 이동에 따른 이주자의 소득증대 효과가 공식부문에 취업하여 기대되는 임금도 포함하기 때문에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것이다(김현우 2020).

인적자본 모형(Schultz 1961; Becker 1975)에 의하면 취업 이동은 인적자본에 의해 결정된다. 주로 대학으로부터 생성되는 인적자본은 학교 소재 지역 이외 타 지역으로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영향을 주는데, 우수한 인적자본의 역외 유출이 많아질수록 노동력 감소로 인하여 지역 성장에 부정적 요소가 된다. 이때, 같은 청년층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간 이동에 있어서 시대적세대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인적자본의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즉, 동일 시기에 출생하여 유사한 경험을 가진 세대에게 발생하는 특징과 청년층이라는 특정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특징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 간 이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김현우 2023).

본 연구는 일자리 선택과 깊이 연관된 인적자본에 초점을 두고 청년층 인구이동의 특징을 살펴본다. 지역 간 이동(사도)을 선택한 대졸자와 수도권 이동을 선택한 대졸자 간 인적자본의 특성과 차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들의 이동 성향이 높은지 파악하고, 인적자본이론이 우리나라 청년층 이동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취업으로 인한 지역 간 이동에서의 인적자본 역할을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시대에 상관없이 청년층이라는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시대에 따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신고전적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이동은 편익의 현재 가치와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즉,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얻게 되는 편익과 지금의 지역에 머무르면서 얻게 되는 편익의 차이에 의해 이동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편익인 개인의 효용은 비경제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모두를 아우른다. 전자는 생활편의시설, 가족과의 근접성 등이 있으며 후자는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거주비용이 있다. 지역 간 이동 요인 연구를 다루는 경제학자들은 비경제적 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상대적인 노동시장 환경, 소득, 주거비용, 지역 간 거리 등의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Greenwood 1985).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해리스-토다로 모형(Harris and Todaro 1970)은 인구이동을 경제적 보상에서 설명하는 노동이동에 관한 대표적 이론이다. 이 모형의 주요한 가정은 이동 결정이 단순 임금 차이보다는 두 지역 간 기대소득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도시에서의 예상 소득이 농촌의 소득을 초과하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현재 실업상태를 감안하고 이주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이주 결정은 경제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 등 다른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구이동의 모든 패턴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신경제지리학에서는 경제활동이 공간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제주체들의 미시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경제활동의 집중과 분산에 대한 경제적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박삼욱, 진종현, 구양미 2008). 신경제지리학의 골간을 이루는 중심-주변부 모형(Core-Periphery Model)은 불완전경쟁하의 수확체증 현상과 금전적 외부효과 개념

을 바탕으로 하는 두 지역 모형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의 분포가 어떻게 중심지와 주변부로 나뉘게 되는지 설명한다(오현정, 김호연 2022). 인구가 많은 지역은 상품 다양성이 높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여 실질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실질임금의 상승은 타 지역 인구의 유입으로 이어져 중심부를 형성한다. 다만 모든 기업이 중심부에 머무르는 균형이 성립되지는 않는데, 어떤 한 지역이 주변부로 이탈하는 경우 해당 주변부의 수요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

Florida(2002)에 따르면 높은 인적자본과 창의적 활동을 통해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창의계층(Creative Class)은 문화적 재화와 주거 여건 등과 관련된 '장소의 질(Quality of Place)'이 높은 지역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 간 이동은 개인의 인적자본에 영향을 받는다는 인적자본 모형은 높은 인적자본을 보유한 인제는 취업과 관련한 정보 획득에도 유리하고, 취업 기회도 상대적으로 높아 고임금을 위해 지역 간 이동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한 대학과 양질의 고용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인재와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인적자본 축적과 다른 부문에서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김재홍 2018). 이에 개인의 인적자본 특성과 지역 간 이동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는 대학 졸업 후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이행에 대한 정보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해당 자료를 활용하였다.

심재현, 김의준(2012)은 지역 간 취업 이동에 미치

는 개인 특성, 학업 특성, 고용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인적자본 특성을 분석하였다. 2008년 GOMS 자료를 활용하여 이항로짓 모형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졸업자는 기업의 크기를 고려하여 지역 간 이동을 결정하며, 급여 상승과 정규직일 경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유입이 증가한다. 그리고 비수도권 졸업자를 잔류시킬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전공 일자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김기승, 정민수(2013)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청년층 특징을 분석하였다. 어학연수 경험이 있을수록, 비인문 계열 전공자일수록, 대학생할 만족도가 낮을수록 서울로 이동할 확률이 높고, 고용가능성보다는 미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수도권 이동요인으로 나타났다.

김재홍(2018)은 울산지역 고교졸업자의 대학 및 직장 소재지 결정에 대해 다항로짓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취업지역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대학 소재지와 자격증 수, 해외연수 등이며, 전공, 학점, 영어 점수, 직업경험 등의 변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 가지 특징은 울산지역 대학과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수도권 취업에 양(+)의 영향을 주는 반면,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울산지역 취업에 음(-)의 영향을 주었다.

박성익, 조장식(2019)은 이변량 프로빗 모형(Bivariate Probit Model) 분석을 통해 학력, 성적, 소득 등의 변수가 지역 권역 간 인력 유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2014년 GOMS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남성이 취업과 유출 확률이 높으며, 고연령일수록, 자격증이 많을수록 취업확률은 높지만, 인력 유출은 낮게 나타났다.

김현우(2023)는 지역 간 청년 이동 원인에서 세대별 특성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GOMS 자료에서의 근로소득, 근로시간, 적성·흥미, 업무량, 개인 발전 가능성, 직장(고용) 안정성,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등 7개 직업 가치 요인의

표 1 _ 청년층 지역 간 이동과 관련한 선행연구 요약

구분	주요 내용	
미시적 요인	심재현, 김의준(2012)	대졸 청년은 기업 규모에 따라 지역 간 이동을 결정하며, 급여와 정규직 등에 의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함.
	김기승, 정민수(2013)	서울로 이동하는 청년들은 고용가능성보다는 미래 소득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지역 간 이동에 영향을 주는 인적자본 요인은 어학연수 경험(+), 비인문 계열(+), 대학생활 만족도(-) 등으로 나타남.
	김재홍(2018)	지역 간 이동에 영향을 주는 인적자본 요인은 대학 소재지와 자격증 수, 해외연수 등 울산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수도권으로의 취업 이동 확률이 양(+) ¹ 의 값으로 나타났지만,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울산으로의 취업 이동 확률이 음(-) ² 의 값으로 나타남.
	박성익, 조장식(2019)	지역 간 이동에 영향을 주는 인적자본 요인은 남성, 학력, 성적, 소득 등임.
	김현우(2023)	고학력·상용직·전문직 일자리 종사자와 개인 발전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층이 지역 간 이동과 수도권으로의 이동을 선택할 확률이 높음.
지역 특성 요인	이찬영, 문제철(2016)	20~30대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에 영향을 주는 지역 특성 요인은 전세가격(-), 도로포장률(+), 사회복지시설수(-), 의료기관병상수(+), 대학생수(+) ³ 등으로 나타남. 20대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 모형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비중(+), 문화기반시설수(+), 사회복지시설수(-) 등으로 나타남.
	이찬영, 이흥후(2016)	청년층은 전출지의 임금(-), 취업률(-), 인구밀도(+), 전세지수(+), 혼인건수(-) 등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남.
	김현우, 강명구(2020)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상용직 비중(+), 일용직 비중(+), 전문직관리직체 육예술 관련 일자리(+), 커피숍(+) ⁴ 등으로 나타남.
	김현아(2013); 김리영, 양광식(2013); 김유현(2021)	지역 간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지역 특성 변수로는 기대소득, 주택가격, 교육여건, 사업체수, 양질의 일자리 등으로 나타남.

중요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학력·상용직·전문직 일자리 종사자와 개인 발전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층이 지역 간 이동과 수도권으로의 이동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김현우 2023).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을 중요시하였으나, 직장(고용) 안정성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낮게 나타난 특징이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미시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청년의 지역 간 이동의 원인을 개인의 특성에서 찾은 연구이다. 한편 지역 간 이동의 원인은 지역의 특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여러 연구에서 통계청의 인구이동통계 등 지역 단위의 자료를 사용하여 지역 간 인구이동의 패턴을 분석했다.

이찬영, 문제철(2016)은 광주전남지역의 연령대별 인구이동 현황을 토대로 광주전남지역과 타 지역 간

인구이동을 분석하였다. 20~30대 청년층 지역 간 이동은 전세가격(-), 도로포장률(+), 사회복지시설수(-), 의료기관병상수(+), 대학생수(+)⁵ 등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으로의 이동 모형에서는 20대는 양질의 일자리 비중(+), 문화기반시설수(+), 사회복지시설수(-)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나 광주전남지역의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동한 원인은 일자리와 문화적 혜택, 인프라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찬영, 이흥후(2016)는 지역 특성 변수 중심으로 청년층(25~29세)의 지역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전출지의 임금(-), 취업률(-), 인구밀도(+), 전세지수(+), 혼인건수(-) 등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출지의 임금과 취업률, 결혼 확률이 낮을수록 타 지역으로 이동할 확률

이 높고, 인구밀도와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이동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동에서는 취업률(-), 인구밀도(+), 혼인건수(-)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김현우, 강명구(2020)는 최근 수도권으로의 재집중화 현상의 배경에는 밀레니얼 세대의 일자리에 대한 선택과 여가 시간 선택에 대한 결정권, 즉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의한 결과로 이동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자기결정권에 영향을 주는 지역 특성 변수를 반영한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2008년과 2018년의 연령층별 지역 간 이동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8년 25~29세 청년층이 다른 연령층과 2008년 청년층에 비해 상용직과 일용직 비중이 높고, 전문직·관리직·체육예술 관련 일자리를 의미하는 창의 일자리가 집적된 지역으로 이동하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커피숍과 같은 생활 어메니티가 잘 조성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지역인구이동과 지역 거시경제변수와 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연구에서는 기대소득, 주택가격, 교육여건, 사업체수, 양질의 일자리 등이 인구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아 2013; 김리영, 양광식 2013; 김유현 2021).

본 연구에서 인적자본 모형을 기반으로 대졸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GOMS 자료를 활용하여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한다는 점에서 미시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한 기존 연구들과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지역 간 이동에 미치는 인적자본 요인의 동학을 분석한 기존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시대에 의한 개인 가치관의 변화가 직업 선택과 지역 이동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가정하여, 시계열에 따른 지역 간 이동에서 인적자본 요인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 모형

대졸자 개인별 인적자본은 연령, 성별, 보유 자격증, 학점, 영어성적, 어학연수 경험, 직업교육 등 개인 및 학업성적 특성과 학교 유형(전문대, 4년제, 대학원)과 전공, 학교 소재 지역 등 학업 특성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 모형에서도 학업 특성을 인적자본으로 반영하여 대졸 청년의 취업 이동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대졸자 취업 이동 특징은 표본선택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였다. 단순 프로빗 모형을 활용한다면,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지역 간 인구이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부 확률 특성을 간과하고, 특성정보를 분석 모형에서 제외하는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본 모형을 활용하였다(김현우 2020).

본 모형은 지역 간 이동을 결정하는 모형과 수도권으로의 이동 여부를 결정하는 모형 등 총 두 개의 프로빗 모형으로 구성되어 표본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한다. 첫 번째 프로빗 모형은 선택모형(Selection Model)이며, 지역 간 이동을 선택한 i 번째 관측치의 특성을 나타낸다. 두 번째 프로빗 모형은 결과모형(Outcome Model)이라고 하며, 수도권으로 이동한 i 번째 관측치의 특성을 나타낸다(김현우 2020).

$$y_{1i} = \beta_1 X_{1i} + \epsilon_{1i}, \quad y_{1i} = \begin{cases} 1 & \text{if } y_{1i} \geq 0 \\ 0 & \text{if } y_{1i} < 0 \end{cases}$$

$$y_{2i} = \beta_2 X_{2i} + \epsilon_{2i}, \quad y_{2i} = \begin{cases} 1 & \text{if } y_{2i} \geq 0 \\ 0 & \text{if } y_{2i} < 0 \end{cases} \quad < \text{식 1} >$$

<식 1>에서 X_{1i} 는 지역 간 이동을 선택한 i 번째 관측치의 특성을 나타내고, X_{2i} 는 수도권으로 이동한 i 번째 관측치의 특성을 나타낸다. ϵ_{1i} , ϵ_{2i} 는 오차항

로 각각 전체 모집단과 지역 간 이동을 결정한 집단에서만 정의되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며, ρ 인 이변량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김현우 2020). 이 가정을 토대로 수도권으로의 이동 확률,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확률, 이동하지 않을 확률 3가지 형태의 무조건부 확률을 만들면 아래 <식 2>와 같다(박성익, 조장식 2019).

$$\begin{aligned} \pi_1 &= P(y_{1i} = 1, y_{2i} = 1) = \Phi_2[\beta_1 X_{1i}, \beta_2 X_{2i}, \rho] \\ \pi_2 &= P(y_{1i} = 1, y_{2i} = 0) = \Phi_2[\beta_1 X_{1i} - \beta_2 X_{2i} - \rho] \\ \pi_3 &= P(y_{1i} = 0) = \Phi(-\beta_1 X_{1i}) \end{aligned} \quad <식 2>$$

Φ_2 는 이변량 정규누적분포함수를 의미하고, Φ 는 일변량 정규누적분포함수, ρ 는 오차항에 대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회귀계수 β_1 과 β_2 를 추정하기 위해 최대가능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을 사용하는 경우 로그-가능도 함수는 <식 3>과 같다(박성익, 조장식 2019).

$$\begin{aligned} \ln L = & \sum_{y_{1i}=1, y_{2i}=1} \ln \Phi_2[\beta_1 X_{1i}, \beta_2 X_{2i}, \rho] \\ & + \sum_{y_{1i}=1, y_{2i}=0} \ln \Phi_2[\beta_1 X_{1i} - \beta_2 X_{2i} - \rho] \\ & + \sum_{y_{1i}=0} \ln \Phi[-\beta_1 X_{1i}] \end{aligned} \quad <식 3>$$

오차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ρ 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이러한 선택성을 무시한 일변량 프로빗 모형의 적용은 통계적 오류를 범하게 되며, 이런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 표본선택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박성익, 조장식 2019).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로 지역 간 이동과 수도권으로의 이동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대기업과 전문직 등 화이트 컬러, 예체능 관련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특성과 인적자본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즉, 표본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 간 이동과 수도권으로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대졸자 인적자본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2. 분석 자료 및 변수 구성

분석 자료인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는 매년 전년도 졸업자 약 1만 8천 명(전체의 약 4%)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 과정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김현우 2023). 동 자료는 개인별 고교 소재지와 대학 소재지, 현재 거주지, 직장지역 등과 관련된 자료가 있어 지역 간 이동 유무를 파악할 수 있으며, 대졸자의 개인별, 학업, 고용 현황 등을 파악하기 수월한 자료이다.

종속변수는 <표 1>과 같이 대졸 청년 취업자의 지역 간 이동 유무($y = 1$ 또는 0)와 수도권으로의 이동 유무($y = 1$ 또는 0)가 된다. 개인별 고교 소재지(시도 기준)를 출신 지역으로 하여 직장 소재지(시도 기준)와 다를 경우, 지역 간 이동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닌 사람도 원래 출신 지역으로 회귀하는 것을 일반적이라고 간주하여 지역 이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대학 소재지에서 취업까지 한 경우라면 지역 이동을 선택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수도권으로의 이동에는 지역 간 이동자 중에서 서울·인천·경기로 이동한 사람으로서 수도권 내부 이동도 포함된다. 따라서 선택모형에서 시도 간 인구이동을 선택한 대졸 취업자는 종속변수가 1이 된다. 그리고 결과모형에서는 지역 간 이동자 중에서도 수도권으로 이동한 대졸 취업자는 종속변수가 1이 된다. 지역 간 이동 결정요인은 개인 및 학업성적 특성, 학업 특성, 고용 특성, 부모 학력 특성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표 2_ 대졸자 취업 이동 결정요인 분석의 주요 변수 및 내용

변수 구분	변수명	설명		
종속변수	이동 여부	지역(시도) 간 이동 = 1, 이동하지 않음 = 0		
	수도권 이동 여부	수도권으로 이동 = 1, 비수도권으로 이동 = 0		
설명 변수	개인 및 학업성적 특성	연령	19~39세(로그값)	
		성별	남성 = 1, 여성 = 0	
		자격증	보유 자격증 수	
		졸업 학점	졸업대학의 학점(로그값)	
		영어시험 점수	영어시험(토익, 토플 등) 점수 보유 = 1, 점수 없음 = 0	
		어학연수 경험	어학연수 경험 있음 = 1, 경험 없음 = 0	
		직업교육 경험	교내 직업교육 경험 있음 = 1, 경험 없음 = 0	
	학업 특성	학교 유형	4년제 대학, 대학원 = 1, 전문대(2년제) 대학 = 0	
		전공	사회교육공학자연의약예체능 등(비교 변수 = 인문)	
		졸업대학 만족도	졸업한 대학의 만족도(5점 척도) (매우 만족 = 5, 전혀 만족하지 않음 = 1)	
		학교 소재 지역	졸업대학의 위치가 특광역시 소재 = 1, 그 외 지역 소재 = 0	
	고용 특성	월평균 소득	현 직장의 월평균 소득(로그값)	
		종사상 지위	상용직	상용직 = 1, 그 외 = 0
			자영업	자영업 = 1, 그 외 = 0
		기업 규모	현 직장의 종사자 수가 300명 이상 = 1, 300명 미만 = 0	
		전공 일치도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무와 전공 일치 수준(5점 척도) (매우 관련 있음 = 5, 전혀 관련 없음 = 1)	
		직업 종류	전문직	연구작기술직, 교육·법률·공무원, 보건·의료직, 예술·방송·스포츠직 = 1, 그 외 직종 = 0
			서비스직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영업·판매·운전·운송직 = 1, 그 외 직종 = 0
생산직	건설·채굴직, 설차·정비·생산직, 농업·어업직 = 1, 그 외 직종 = 0			
부모 학력 특성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중학교 졸업 이하 = 1, 그 외 학력 = 0	
		전문대졸	전문대 졸업 = 1, 그 외 학력 = 0	
		대졸	대학교 졸업 = 1, 그 외 학력 = 0	
		대학원졸	대학원 졸업 = 1, 그 외 학력 = 0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중학교 졸업 이하 = 1, 그 외 학력 = 0	
		전문대졸	전문대 졸업 = 1, 그 외 학력 = 0	
		대졸	대학교 졸업 = 1, 그 외 학력 = 0	
대학원졸	대학원 졸업 = 1, 그 외 학력 = 0			

개인 및 학업성적 특성은 연령(로그값), 성별(남성=1), 자격증(보유 자격증 수), 졸업 학점, 영어시험 점수 보유(보유=1), 어학연수 경험(경험 있음=1), 직업교육 경험(경험 있음=1) 등으로 구성하였다. 영어점수의 경우, 시험 종류마다 고득점 기준이 상이하여 척도나 점수를 모형에 포함시키기 어려워 취업을 위해 외국어 시험 경험 여부로만 판단하였다. 학업 특성은 학교 유형(4년제 대졸 이상=1), 전공 계열, 졸업대학

만족도(1~5점 척도), 학교 소재 지역(특광역시=1) 등으로 구성하였다. 졸업대학 만족도는 개인별로 만족도를 느끼는 요인과 기준이 상이하지만, 학교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수로 포함하였다. 고용 특성은 대졸 취업자가 지역 간 이동을 통해 어떠한 직업 특성을 가지는지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 구성하였다. 월소득 평균(로그값), 종사상 지위(상용직·비상용직·자영업), 기업 규모(300

인 이상=1), 전공 일치도(1~5점 척도), 직업 종류(전문직·서비스직·생산직·사무직) 등으로 구성하였다.

부모 학력 변수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지역 간 이동 영향과 취업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기존 연구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자녀의 교육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0.1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어머니의 교육 수준 또한 0.10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우광호, 안준기, 황성수 2010). 이는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력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높은 인적자본은 좋은 일자리를 얻을 확률과 지역 간 취업 이동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개 연도의 대졸자 취업 이동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최소 7,061명에서 최대 1만 3,32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도별로 분석대상자 수가 다른 것은 각 변수에 관련된 문항의 응답 여부에 따라 표본 설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IV. 대졸자 취업 이동 결정요인 분석

표본선택 이변량 프로빗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택모형(지역 간 이동)의 2019년도 결과를 설명하자면, 개인 및 학업성적 특성 중 성별은 남성, 졸업학점이 높을수록, 영어시험 성적을 보유할수록, 어학연수 경험이 있는 경우, 지역 간 이동 확률이 높았다. 반면, 자격증이 적을수록 지역 간 확률이 낮았다. 개인 및 학업성적 특성 변수의 특징을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지역 이동의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 이동에 대한 금전적·심리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남성이 적기 때문에 지역 간 이동을 선택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이며, 어학연수 경험과 영어시험 점수 보유, 높은 졸업학점 등 학업성적 수준이 높으면, 취업확률도 상승하므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기 때문이다(김

현우 2023).

학업 특성에서는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일수록, 사회교육·공학·자연·의학·예체능 계열 졸업자일수록 인문 계열에 비해 지역 간 이동 확률이 높다. 그리고 특광역시 대학교 졸업자일수록 광역도 소재 대학교 졸업자보다 지역 간 이동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와 비인문 계열이 취업확률이 높고, 관련 일자리가 많은 직종일수록 지역 간 이동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예컨대 의학 계열의 경우,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있는 지역과 환자가 많은 지역에 개원하는 수요가 높으므로 지역 간 이동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예체능 계열은 문화·체육·예술 분야로 취업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특광역시 소재 대학 출신자들이 지역 간 이동 확률이 높은 것은 특광역시 내에 지역 내 대학 수가 많고, 경쟁력 있는 대학도 다수 분포하였기 때문에 지역 간 이동할 수 있는 인적자본을 보유한 대졸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특성은 현재 직업의 월평균 소득이 높고, 상용직 일자리이며, 기업 규모가 크고, 전문직이거나 생산직일수록 지역 간 이동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즉, 청년층은 근로소득과 일자리의 안정성, 기업의 규모(안정성) 등 좋은 일자리가 지역 간 이동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모 학력은 대부분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어머니 학력 중 전문대 졸업과 대학원 졸업이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선택모형(지역 간 이동) 연도별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시간 변화와 상관없이 지역 간 이동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변수와 특정 시점 전·후로 통계적 유의성이 변화하는 변수가 있다. 우선 성별, 자격증, 졸업학점, 학교 유형, 학교 소재 지역, 월평균 소득, 기업 규모, 전공 일치도, 전문직 등 변수는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역 간 이동에 일관되게 영향을 주는

표 3_ 대졸자 취업 이동 결정요인 분석 결과(2009~2019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개인 및 학업 성적 특성	연령	0.587*	0.672*	0.744*	0.646*	0.310•	0.296°	-0.021	-0.071	-0.026	0.133	-0.004	
	성별	0.136*	0.175*	0.079*	0.113*	0.058°	0.138*	0.242*	0.193*	0.237*	0.142*	0.170*	
	자격증	-0.010	-0.023*	-0.030*	-0.023•	0.004	0.016°	0.003	-0.034*	-0.037*	-0.047*	-0.020°	
	졸업학점	0.085*	0.112*	0.075*	0.044	0.054°	0.071•	0.015	0.134*	0.118*	0.130*	0.123*	
	영어시험 점수	0.070•	0.017	0.074*	0.115*	-0.027	-0.174*	0.040	0.048°	0.023	0.052°	0.078•	
	어학연수 경험	0.047	0.021	0.024	0.086•	0.065°	0.102•	0.078°	0.021	0.065	0.015	0.115•	
	직업교육 경험	0.037	0.032	-0.019	-0.029	-0.041	-0.069•	-0.016	-0.032	-0.047°	0.020	-0.065	
학업 특성	학교 유형	0.288*	0.284*	0.271*	0.177*	0.230*	0.206*	0.310*	0.334*	0.403*	0.354*	0.388*	
	전공	사회	-0.015	0.041	-0.092•	0.008	-0.049	0.098•	-0.041	-0.064	-0.043	-0.091°	0.027
		교육	-0.012	0.026	-0.052	0.010	-0.101°	0.022	0.027	-0.014	-0.049	-0.018	0.171•
		공학	-0.017	0.145*	-0.047	0.005	0.083°	0.136*	0.031	0.059	-0.027	0.039	0.201*
		자연	-0.066	0.119•	-0.007	0.036	0.004	0.104•	0.050	0.052	-0.003	0.039	0.213*
		의약	0.242*	0.190*	0.066	0.124°	0.022	0.231*	0.126•	0.170*	0.098	0.104	0.190•
		예체능	0.092°	0.065	-0.026	0.101°	0.054	0.194*	0.106°	0.171*	0.062	0.155*	0.325*
	졸업대학 만족도	-0.008	0.018	0.026°	0.018	-0.004	0.053*	-0.008	0.038*	0.035•	0.020	0.026	
학교 소재 지역	0.097*	0.090*	0.094*	0.085*	0.046°	0.153*	0.149*	0.140*	0.120*	0.111*	0.179*		
지역 간 이동	월평균 소득	0.119*	0.136*	0.201*	0.119*	0.155*	0.153*	0.104*	0.127*	0.078•	0.057°	0.144*	
	종사상 지위	상용직	-0.008	0.033	-0.038	-0.045	0.021	-0.020	0.064	0.012	0.081*	0.243*	0.179*
		자영업	-0.124	-0.003	-0.156•	-0.214°	-0.079	-0.176•	-0.017	-0.096	-0.059	0.136°	-0.102
	기업 규모	0.202*	0.218*	0.238*	0.145*	0.199*	0.196*	0.299*	0.266*	0.209*	0.280*	0.238*	
	전공 일치도	0.113*	0.069•	0.068•	0.077°	0.081*	0.028	0.042	0.088*	0.099*	0.104*	0.044	
	직업 종류	전문직	0.225*	0.205*	0.227*	0.145*	0.166*	0.130*	0.223*	0.162*	0.182*	0.154*	0.150*
		서비스직	0.082•	-0.044	-0.013	-0.018	-0.033	-0.034	-0.066	-0.134*	-0.028	-0.052	0.035
		생산직	0.205*	0.016	0.054	0.064	-0.022	0.122•	0.066	-0.007	0.082	0.100°	0.136°
부모 학력 특성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0.003	0.044	0.048	0.025	0.058	0.104•	0.033	0.039	-0.071	-0.042	0.046
		전문대	-0.082	0.021	0.092°	0.062	-0.058	-0.081	-0.072	0.068	0.023	0.083°	-0.030
		대졸	0.017	-0.039	-0.022	0.031	0.047	0.058°	0.032	0.032	0.045	0.022	-0.005
		대학원졸	0.216*	0.133•	0.108•	0.168*	0.090	0.107°	-0.020	0.068	0.123•	0.064	-0.059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0.105*	-0.011	0.027	0.069°	0.004	-0.112•	0.000	0.020	0.103•	0.090	-0.055
		전문대	-0.045	-0.006	0.082	-0.066	-0.041	-0.043	-0.006	0.056	0.094°	0.043	0.138*
		대졸	-0.022	-0.031	-0.038	0.084•	0.021	0.037	0.016	0.054	-0.033	0.045	-0.018
		대학원졸	-0.116	0.095	0.042	-0.031	0.080	0.039	0.007	0.063	-0.103	0.033	0.221*
상수항	-3.869*	-4.405*	-4.674*	-3.934*	-2.698*	-2.797*	-1.632*	-2.087*	-1.939*	-2.413*	-2.533*		

(계속)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도권 이동	개인 및 학업 성적 특성	연령	0.283 [◦]	0.568*	0.707*	0.507*	0.467*	0.477*	0.467 [•]	0.547*	0.472 [•]	0.470 [•]	0.576 [•]	
		성별	0.075*	0.090*	-0.003	-0.004	-0.077 [•]	0.041	0.033	0.025	0.010	-0.027	-0.033	
		자격증	-0.011	-0.047*	-0.040*	-0.048*	-0.017 [◦]	-0.023 [•]	-0.027*	-0.073*	-0.089*	-0.091*	-0.036*	
		졸업학점	0.022	0.055 [◦]	-0.001	0.000	-0.012	0.019	-0.039 [◦]	0.075 [•]	0.072 [•]	0.072 [•]	0.043	
		영어시험 점수	0.138*	0.091*	0.175*	0.207*	0.105*	0.110*	0.160*	0.187*	0.130*	0.184*	0.106*	
		어학연수 경험	0.100*	0.046	0.056 [◦]	0.109*	0.097 [•]	0.112*	0.055	-0.007	0.041	0.017	0.017	0.083
		직업교육 경험	0.092 [•]	-0.039	0.014	-0.206*	0.034	-0.007	-0.018	0.002	0.012	-0.053 [◦]	0.005	
	학업 특성	학교 유형	0.188*	0.238*	0.182*	0.106*	0.136*	0.085 [•]	0.202	0.233*	0.308*	0.238*	0.265*	
		전공	사회	-0.018	-0.038	-0.133*	0.013	-0.086 [◦]	0.005	-0.058	-0.032	-0.113 [•]	-0.085 [◦]	-0.049
			교육	-0.222*	-0.268*	-0.234*	-0.188*	-0.297*	-0.290*	-0.136 [•]	-0.204*	-0.156 [•]	-0.297*	-0.225*
			공학	-0.077	-0.024	-0.130*	-0.063	-0.049	-0.037	-0.022	-0.065	-0.152*	-0.140*	-0.009
			자연	-0.166*	-0.050	-0.088 [◦]	-0.060	-0.096 [◦]	-0.051	-0.106 [◦]	-0.058	-0.217*	-0.226*	-0.132 [◦]
			의약	0.046	0.011	-0.051	-0.010	-0.151 [•]	0.024	-0.014	-0.051	-0.120 [◦]	-0.084	-0.140 [◦]
		예체능	0.119 [•]	0.028	0.018	0.060	0.149*	0.253*	0.245*	0.226*	0.126 [•]	0.199*	0.308*	
	졸업대학 만족도	-0.032 [◦]	-0.013	-0.002	-0.003	-0.037 [•]	-0.005	-0.061*	-0.029 [◦]	0.008	-0.005	-0.008		
	학교 소재 지역	-0.003	0.094*	0.048 [•]	0.009	-0.016	0.058 [•]	0.055 [•]	0.119*	0.090*	0.114*	0.155*		
	고용 특성	월평균 소득	0.158*	0.185*	0.227*	0.122*	0.181*	0.155*	0.190*	0.162*	0.126*	0.166*	0.188*	
		종사상 지위	상용직	-0.034	0.008	-0.100 [•]	-0.054	-0.011	-0.068 [◦]	0.084	-0.067	0.114 [•]	0.219*	0.082
			자영업	-0.155 [◦]	-0.150 [•]	-0.172 [•]	-0.165 [◦]	-0.143 [◦]	-0.254*	-0.078	-0.138	-0.061	0.100	-0.184
		기업 규모	0.111*	0.110*	0.145*	0.130*	0.113*	0.095*	0.183*	0.099*	0.035	0.078 [•]	0.114*	
		전공 일치도	0.072 [•]	0.068 [•]	0.061*	0.083 [•]	0.018	0.069 [•]	0.052	0.096*	0.065 [•]	0.100*	0.054	
		직업 종류	전문직	0.148*	0.161*	0.143*	0.140*	0.109*	0.115*	0.118*	0.148*	0.122*	0.156*	0.186*
			서비스직	0.025	-0.041	-0.041	-0.023	-0.004	-0.026	-0.077	-0.122 [•]	-0.097 [◦]	-0.027	0.076
	생산직		-0.029	-0.163 [•]	-0.188*	-0.191*	-0.307*	-0.126 [•]	-0.258*	-0.228*	-0.101	-0.088	-0.094	
	부모 학력 특성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0.014	-0.005	0.000	0.005	0.100 [•]	0.025	-0.017	0.006	-0.046	-0.135 [•]	0.082
			전문대	-0.126 [◦]	0.093	0.070	0.109 [◦]	0.067	-0.103	-0.103 [◦]	0.130 [•]	0.057	0.116 [•]	0.020
			대졸	0.071 [◦]	-0.012	0.026	0.095 [•]	0.126*	0.027	0.085 [•]	0.036	0.070 [◦]	0.052	0.051
대학원졸			0.371*	0.217*	0.183*	0.245*	0.264*	0.166*	0.141 [•]	0.177*	0.234*	0.070	0.101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0.060	-0.051	-0.023	0.008	-0.071	-0.091 [◦]	-0.056	-0.051	0.124 [•]	0.108 [◦]	-0.120	
		전문대	-0.180*	-0.104	0.196*	-0.067	-0.046	-0.004	-0.038	0.010	0.058	0.027	0.115 [•]	
		대졸	0.008	0.030	0.042	0.139*	0.016	0.007	0.055	0.053	0.040	0.050	0.054	
	대학원졸	-0.123	0.088	0.137	0.071	0.044	0.094	0.020	0.055	-0.065	0.075	0.361*		
	상수향	-2.822*	-4.030*	-4.416*	-3.410*	-3.154*	-3.293*	-3.419*	-4.000*	-3.682*	-3.911*	-4.350*		
athrho		11.158	12.548	3.536	9.842	9.335	12.302	3.392	2.906	3.397	10.556	21.519		
Prob > chi2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N		11,230	12,762	13,321	10,796	11,148	11,474	11,215	11,212	10,670	10,519	7,061		

주: 유의수준 1%는 *, 5%는 •, 10%는 ◦임.

자료: 고용조사 분석시스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09~2019년(<https://survey.keis.or.kr/index.jsp>, 2022년 9월 2일 검색).

변수였다. 이 중 자격증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 간 이동과 양(+)의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 높은 학업성적과 고학력, 특광역시 대학 졸업자일수록 지역 간 이동을 선택하여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적자본이 높을수록 경쟁력이 높아 지역 간 이동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인적자본이 높을수록 지역 간 이동 비용이 적은 이유는 구직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근로소득 창출이 빠르며, 구직활동 기간 동안의 경제적 비용,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비용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년층은 월평균 소득이 높고, 전공과 일치된 규모가 큰 기업으로 취업한 대졸자가 지역 간 이동을 선택했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소득과 대기업에 대한 선호가 지난 11년간 지역 간 이동에 일정하게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령과 지역 간 이동 확률은 양(+)의 인과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졸업 이후 일정 기간 지역 내에서 취업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면서 지역 간 이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2015년부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더 이상 연령은 지역 간 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종사상 지위 중 상용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이동을 통해 상용직 일자리에 취업한 확률이 높았다. 즉, 최근 들어 청년층은 지역 간 이동을 선택할 때 직업 안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학력 특성 중에서는 아버지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에 4개 연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나 일부 기간에서는 아버지 학력과 지역 간 이동 확률이 양(+)의 인과관계로 나타났다.

선택모형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지역 간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개인의 학업성적과 같은 인적자본이 높을수록 이동에 따른 기대수익이 높기 때문

에 이동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이 높거나 대기업인 경우, 지역 간 이동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적자본이 높은 대졸자가 높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으로의 취업을 위해 지역 간 이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분석 시기 초반에는 인적자본 축적으로 인한 높은 연령일수록 지역 간 확률이 높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연령은 주요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 간 이동에서 나이가 많고 적은 상관없이 여건에 따라 이동을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상용직 일자리는 최근 들어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였는데 높은 근로소득과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지역 간 이동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결과모형(수도권 이동)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9년 기준 개인 및 학업성적 특성 중에서는 연령, 자격증, 영어시험 점수 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연령은 높을수록, 자격증 수는 적을수록, 영어시험 점수를 보유할수록 수도권으로의 이동 확률이 높았다. 수도권 이동에서는 선택모형과 달리 연령이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는 반면,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수도권으로의 이동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인적자본 축적에 의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동 확률이 높은 반면, 성별은 유의미하지 않아 지역 간 이동과 달리 여성의 수도권 이동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영어시험 점수 보유는 지역 간 이동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였으나, 어학연수 경험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업 특성은 학교 유형, 교육자연·의학예체능 계열, 학교 소재 지역 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지역 간 이동과 유사하였다.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일수록, 특광역시 대학교 졸업자일수록 수도권으로의 이동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교육자연·의학 계열 변수의 부호는 음(-)의 값으로 나타

나 선택모형과 반대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수도권이 공교육 및 사교육, 병원, 의료산업 시장이 크지만 높은 경쟁으로 인한 진입장벽 때문에 지역 간 이동을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특성은 월평균 소득이 높고, 기업 규모가 크고, 전문직 종사자일수록 수도권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았다. 선택모형과 비교할 때, 상용직 일자리와 생산직 직종 변수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소득대기업에 대한 선호가 지역 간 이동과 수도권으로의 이동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는 수도권 이동을 선택하는 데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부모 학력 특성은 어머니 학력이 전문대 졸업, 대학원 졸업만 각각 양(+)¹⁾의 값으로 나타난 반면, 아버지 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과모형(수도권 이동)의 연도별 변화에서도 시간 변화와 상관없이 이동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는 변수와 특정 시점 잔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변화하는 경우가 있다. 연령, 자격증, 영어시험 점수, 학교 유형, 교육예체능 계열, 학교 소재 지역, 월평균 소득, 기업 규모, 전공 일치도, 전문직, 아버지 학력 중 대학원 졸업 등 변수는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역 간 이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였다. 이 중 연령, 영어시험 점수, 학교 유형, 예체능 계열, 학교 소재 지역, 월평균 소득, 기업 규모, 전공 일치도, 전문직, 아버지 학력 중 대학원 졸업변수는 양(+)¹⁾의 값인 반면, 자격증, 교육 계열 등은 음(-)¹⁾의 값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수도권으로의 이동 확률이 높은 것은 경쟁률이 높고, 양질의 일자리와 대기업이 많은 수도권으로의 취업을 위해 개인의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버지 학력 중 대학원 졸업변수는 유의한 양(+)¹⁾의 값으로 나타나 아버지 학력이 고학력일수록 가정환경 요인으로 인해 대기업

과 고소득 등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유의한 변수였으나, 최근 들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변화하는 변수로는 졸업학점, 어학연수 경험, 자영업, 생산직 변수가 있다. 졸업학점은 2010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유의한 양(+)¹⁾의 값으로 나타났지만, 2015년은 음(-)¹⁾의 값으로 나타났다. 어학연수 경험은 2009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양(+)¹⁾의 값으로 나타나 지역 간 이동에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으나, 최근 들어 어학연수 경험은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종사자 변수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유의한 음(-)¹⁾의 값으로 나타났지만, 그 이후는 어학연수 경험과 함께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의 경우, 수도권에 높은 경쟁률과 진입장벽으로 2010년대 중반까지는 수도권으로의 이동 확률이 낮았으나 그 이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생산직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사무직에 비해 수도권 이동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도권 이동자의 대부분은 생산직보다는 전문직과 사무직인 화이트 컬러 직종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결과모형과 선택모형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상당 부분 동일하였으나, 성별, 연령, 영어시험 점수, 교육예체능 계열 등은 차별성을 보였다. 이는 수도권 취업을 위해서 개인 역량 및 경력 등 일정 기간 인적자본 축적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가 이동할 확률이 높고, 수도권의 높은 경쟁 수준과 진입장벽이 영향을 미치는 전공 계열 졸업자는 이동할 확률이 낮았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이론을 근거로 대졸 취업자의 지역 간 이동에 인적자본의 영향을 동태적으로 파악하였다. 시간의 변화와 상관없이 청년층의 지역 간 취업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여 변화하는 요인을 파악한다면, MZ세대로 불리는 현재 청년층에 대한 고용 정책과 지역유출방지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첫째, 청년층은 영어성적 보유 및 높은 졸업학점, 고학력 등 인적자본이 높을수록 지역 이동에 따른 기대수익의 증가로 타 시도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현재의 직장이 고소득과 대기업, 전문직인 경우에도 지역 간 이동 확률이 높았다. 이는 높은 인적자본을 보유한 대졸자가 지역 간 이동을 통해 좋은 일자리와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높은 인적자본과 고소득 직장은 시간과 상관없이 지역 간 이동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성별과 연령, 교육예체능 계열 변수는 시도 간 이동과 수도권으로의 이동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지역(시도) 간 이동에서는 여성에 비해 이동 비용이 낮은 남성이 이동 확률이 높았지만, 수도권으로의 이동에서는 성별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반면,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졌지만, 지역 간 이동에서는 2014년까지만 유의한 반면, 수도권으로의 이동에서는 시간의 변화와 상관없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는 인적자본 축적으로 인해 연령이 높아지며, 특히 수도권으로의 이동에서는 높은 경쟁률과 진입장벽으로 인해 연령 변수가 모든 분석 기간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수도권에 높은 경쟁 수준과 진입장벽이 있는 직업과 관련된 교육예체능 계열 졸업자는 수도권으로의 이동 확률이 낮

았다. 셋째, 시간에 따라 영향이 변하는 변수로는 지역 간 이동 모형에서는 연령, 상용직 변수 등이, 수도권 이동 모형에서는 졸업학점, 어학연수 경험, 자영업, 생산직 변수가 있다. 이는 같은 청년층이라도 시대에 따라 이동에 미치는 요인이 달라지며, 목적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청년층이 가지는 직업 가치관(직업 선택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목적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의 높은 경쟁률과 진입장벽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경우와 이를 감수하고 수도권에서 취업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이동 모형에서 자영업 여부는 2010년대 중반까지는 수도권으로의 이동 확률을 낮추는 요인이었으나, 그 이후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수도권에 높은 경쟁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시장을 목표로 수도권에 진입하는 청년 자영업자가 많아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는 단년도 분석에 초점을 둔 기존 연구와 달리 대졸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에서 인적자본 요인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불변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특성과 불균형 등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좋은 일자리와 기업이 많다면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수도권 유출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분명, 일자리는 지역 인구 증가와 고용률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에서 미치는 요인은 직업 이외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준다.

이를 비롯한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증분석에서 제시한 인적자본이나 고용 특성보다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특성이 청년층의 지역 이동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산업구조, 생활환경 등 지역 차원의 특성이 청년층의 이동과 관련이 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과 같은 대규모 정부 정책도 청년층의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지역 간 이동의 유형을 단순화했다는 점이다. 지역 간 이동의 유형은 특광역시 간 이동, 사군과 대도시 간 이동, 권역 내외 이동으로 세분화할 수 있고, 유형별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상이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GOMS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노동패널이나 청년패널조사와 같이 다양한 인적자본 변수가 포함된 원자료를 활용하여 더 구체적인 인적자본 등의 특성과 정책변화 그리고 지역 간 이동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도 인구와 일 자리는 지역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던 만큼 지역인구 문제는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유희연 2023). 특히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동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나, 저출생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로 인해 청년 인구이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인구이동은 사회작경 제작개인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청년 일자리, 청년수당 등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다양한 정책의 융합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비수도권 청년 유출을 줄이는 정책과 수도권 청년을 분산하는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이 다르므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청년 유출을 줄이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제조업 일자리의 지역 간 균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수도권 청년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이외 전문직과 예체능 관련 직업, 대중견기업 일자리 등을 비수도권에 늘리기 위한 산업구조 개편 및 기업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고용조사 분석시스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2009~2019년. <https://survey.keis.or.kr/index.jsp> (2022년 9월 2일 검색). Employment Survey.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2008~2019. <https://survey.keis.or.kr/index.jsp> (accessed September 2, 2022).
2. 김기승, 정민수. 2013. 청년층 인재유출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31권, 2호: 103-130. GiSeung Kim and Min-Su Chung. 2013. The Determinants of the out-migration of human capital in Busan metropolitan area in Korea. *Journal of Economics Studies* 31, no.2: 103-130.
3. 김리영, 양광식. 2013. 인구 유입과 유출을 결정하는 지역 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권, 3호: 1-19. Kim, Lee-Young and Yang Kwang-Sik. 2013. Empirical analysis of regional characteristic factors determining net inflow and outflow of the population.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25, no.3: 1-19.
4. 김재홍. 2018. 대졸자의 취업이동과 지역인재유출: 울산지역 사례. *한국지방자치연구* 19권, 4호: 69-90. KIM, JAE-HONG. 2018. Job migration of college graduates and regional brain drain: A case study of the Ulsan region. *Korean Local Government Review* 19, no.4: 69-90.
5. 김유현. 2021. 지역의 경제·생활여건이 청년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정보* 55권, 2호: 337-367. Kim, Youhyun. 2021. The effects of regional economic and living conditions on youth population migrati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5, no.2: 337-367.
6. 김현아. 2013. 시도간 인구이동과 재정정책. *재정포럼* 203호: 23-38. Hyun-A Kim. 2013. Regional population movement and fiscal policy. *KIPF Brief* 203: 23-38.
7. 김현우. 2020. 밀레니얼 세대 청년층의 수도권 재집중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Kim, Hyunwoo. 2020. *Reconcentration of millennials into Seoul capital region*. Ph.D. diss., University of Seoul.
8. _____. 2023. 청년세대 지역 간 이동자의 직업 가치관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지방행정연구* 37권, 1호: 319-342. Hyunwoo Kim. 2023. An empirical analysis of changes in occupational values in regional migration of the young population.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37, no.1: 319-342.
9. 김현우, 강명규. 2020. 삶의 자기결정권 선호에 따른 밀레니

- 얼 세대 청년층의 인구이동 특징.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2권, 5호: 49-78.
- Kim, Hyunwoo and Kang, Myounggu. 2020.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migration among millennials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 for self-determination in life.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32, no.5: 49-78.
10. 하수정, 이차희, 심혜민, 이종표. 2022. 청년의 지역이동과 정책. 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 Brief 11호 1-14. 세종: 국토연구원.
Ha Sujeong, Lee Chahee, Sim Hyemin and Lee Jongpyo. 2022. Regional movement and settlement of youth. *Balanced development monitoring and issue Brief* no.11, 1-14. Sejo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11. 박삼욱, 진종현, 구양미. 2008. 서울의 인구고령화와 고령자 고용의 지역적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43권, 3호: 337-357.
Sam Ock Park, Jong Heon Jin and Yangmi Koo. 2008.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ageing and the employment of aged workers of Seoul.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3, no.3: 337-357.
 12. 박성익, 조장식. 2019.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활용한 인력유출 결정요인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30권, 1호: 23-31.
Sungik Park and Jangsik Cho. 2019. An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brain-drain using bivariate probit model.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0, no.1: 23-31.
 13. 심재현, 김의준. 2012. 대학 졸업자의 지역 간 취업 이동 요인 분석. *국토연구* 75권: 37-51.
Shim Jaeheon and Kim Euijune. 2012. Analysis of occupational mobility of college graduates.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75: 37-51
 14. 이찬영, 문제철. 2016. 광주전남 지역의 연령별이동지역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29권, 6호: 2239-2266.
Lee Chanyoung and Jae-Chul Moon. 2016. An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population migration in Gwangju and Jeonnam by age and movement area.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9, no.6: 2239-2266.
 15. 이찬영, 이홍후. 2016.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과 전망. *경제연구* 34권, 4호: 143-169.
Chanyoung Lee and Heunghu Lee. 2016. An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youth population movement across regions and prospects. *Journal of Economics Studies* 34, no.4: 143-169.
 16. 오현정, 김호연. 2022. 정부 보조금이 산업의 집적패턴에 미치는 영향. *국제경제연구* 28권 3호: 1-24.
Hyeon Jeong Oh and Ho Yeon Kim. 2022. The effects of government subsidies on industrial agglomeration patterns. *Kukje Kyungje Yangu* 28, no.3: 1-24.
 17. 우광호, 안준기, 황성수. 2010. 교육 및 부(富)의 세대간 이전 대학생활을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19권, 3호: 121-150.
Kwangho Woo, Junki Ahn, and Hwang Sung Su. 2010. The study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education and income.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19, no.3: 121-150.
 18. 유희연. 2023. 대통령 연설문 내용분석을 통한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비교연구. *국토연구* 117권: 61-87.
You, Heeyoun. 2023. A study on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of three governments since the 2000s: Focusing on the contents analysis of presidential speech archives.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117: 61-87.
 19. 통계청. 2023. 2022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1월 30일. 보도자료.
Statistics Korea. 2023. Domestic population movement statistics results, January 30. Press release.
 20. Becker, Gary. 1975.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Second Edition*.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21. Florida, Richard.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New York: Basic Books.
 22. Greenwood, Michael. J. 1985. Human migration: Theory, models, and empirical studie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5, no.4: 521-544.
 23. Harris, R. L and Todaro, M. P. 1970. Migration Unemployment and Development: A Two-Sector Analysi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0, no.1: 126-142.
 24. Schultz, Theodore William. 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51: 1-17.
 25. Todaro, Michael Paul. 1971. Income expectations, rural-urban migration and employment in Africa.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04: 387-413.
-
- 논문 접수일: 2024. 04. 17.
 - 심사 시작일: 2024. 05. 02.
 - 심사 완료일: 2024. 05. 17.

요약

주제어: 인구이동, 청년인구, 취업이동, 지역균형발전, 표본선택 이변량프로빗모형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는 학업, 취업 등을 위해 과거부터 이어져 왔으나, 저출생·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대두되면서 최근 청년 인구이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이론에 따른 개인 인적자본이 취업 이동에 미치는 요인의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대졸자 취업 이동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영어성적 보유, 높은 졸업학점, 고학력 등 인적자본이 높을수록 타 시도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 확률이 높아진다. 둘째, 목적지(수도권 또는 타 시도)에 따라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다. 이는 수도권의 높은 경쟁률과

진입장벽이 취업 이동에 긍정적 작용 여부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이동 비용이 낮은 남성의 이동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최근 들어 여성의 이동 확률이 높아지면서 성별은 더 이상 유의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기업·고소득전문직 직장이 많은 수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 인적자본 축적에 따른 시간 소모로 연령이 높아진다. 지역 간 취업 이동에서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과 MZ세대로 불리는 현재 청년층에 특별히 영향을 주는 요인을 맞춤형으로 반영한다면 효과적인 청년 고용 정책과 지역유출방지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